



[산업]
SK(주)
글로벌 에너지 영토
무한 확장
05

‘재계의 모범’ 구본무 회장 별세… LG 4세 경영시대

향년 73세, 숙환으로 별세
23년만에 LG 경영권 승계

그룹 최초 지주회사 전환 등
선견지명으로 투명경영 펼쳐
지배구조 논란 속 모범사례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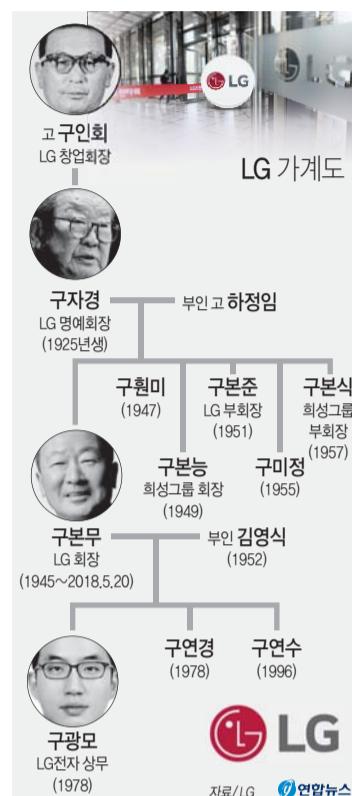
LG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온 구
본무 회장이 20일 숙환으로 별세
했다. 향년 73세.

이에 따라 외아들인 구광모 LG
전자 상무가 경영전면에 나서게
됐다. LG그룹의 경영권 승계가
이뤄지는 것은 23년 만이다.

LG그룹은 이날 오전 9시52분
께 구 회장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
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고
밝혔다. <관련기사 2, 3, L7면>

고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
수차례 지병으로 수술을 받았으
며, 통원 치료를 하다가 최근 상태
악화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
했다.

그룹 관계자는 “장례도 조용하
고 간소하게 치르기를 원했던 고
인의 유지와 유족들의 뜻에 따라
가족장으로 조문과 조화는 정중



히 사양하기로 했고, 공개도 하지
않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
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
의 손자이자 구자경 LG 명예회장
의 장남으로 ‘LG가(家) 3세대 총
수’인 고인은 지난 1995년부터 그

룹 회장을 맡았다.

고인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
탕으로 그룹 핵심 사업인 전기·전
자와 화학 사업은 물론 통신서비스,
자동차부품, 디스플레이, 에너
지,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 분야에
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
경영 행보로 LG그룹을 글로벌 기
업으로 발돋움 시켰다는 평가를
받는다.

구 회장이 타계하면서 LG그룹
은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
가 이어받게 된다.

구 상무는 구 회장의 동생인 구
본능 회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.
2004년 고인의 양자로 입양됐으
며, 내달 29일 열릴 (주)LG의 임시
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
는 것을 계기로 경영 전면에 나설
것으로 예상된다.

구 상무는 그룹 지주회사인 (주)
LG의 하현희 부회장을 비롯한 6
명의 ‘전문경영인 부회장단’에게
계열사별 현장 경영을 맡기고 자
신은 큰 틀의 경영 좌표를 제시하
면서 신성장 사업 발굴에 주력할
전망이다.

LG그룹이 미래 멀거리로 꿇는

자동차 전자 부품 사업을 비롯해
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
T),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등
에 구상무가 주력할 것으로 관측
된다.

와병 중이던 구 회장을 대신해
사실상 그룹 총괄 경영을 맡았던
구본준 부회장은 당분간 구 상무
에게 ‘조언자’ 역할을 할 것으로
예상된다.

구 회장은 타개하기 직전 구 회
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가 참석
한 가운데 가족회의를 열고, 경영
은 구본준 부회장이 하고, 장기적
으로는 계열분리를 한다는 내용의
대략적인 경영승계 및 계열분리
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룹 관계자는 “대기업 지배구
조 암박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
요즘, LG그룹이 재계의 모범사
례로 꼽힌 것은 구 회장이 지주회
사 전환을 통한 투명경영을 일찍
부터 실행에 옮긴 구 회장의 선견
지명 덕분”이라며 “미래 경영환경
에 대한 이같은 선견지명은 ‘글로
벌 LG’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”고
말했다.

구 상무는 그룹 지주회사인 (주)
LG의 하현희 부회장을 비롯한 6
명의 ‘전문경영인 부회장단’에게
계열사별 현장 경영을 맡기고 자
신은 큰 틀의 경영 좌표를 제시하
면서 신성장 사업 발굴에 주력할
전망이다.

/정은미 기자 21cindiun@metroseoul.co.kr



20일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. 향년 73세. 사진은 2016년 2월 LG 테크노콘퍼런스에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구 회장 모습. /연합뉴스



지구를 지키는 온도 1.5°C

그린피스, 세계자연기금(WWF),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열린 ‘기후행진 2018’ 행사에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.5°C 이내 유지 목표 이행을 촉구하며 환경단체 회원과 시민 등 참가자들이 모여 1.5°C란 글씨
를 연출하는 휴먼 레터링(Human Lettering)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. /연합뉴스

우리은행 “지주전환 추진… 내년 초 출범 목표”

종합금융그룹 경쟁력 확보
효율성·기업가치 상승 기대

“내년 초 지주사 전환을 이루고
1등 종합금융그룹을 구축하겠다.”

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올해 경
영전략 중 하나로 지주사 전환을
꼽고 있다.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
사업을 다각화해 한 단계 더 성장
하기 위한 전략이다.

우리은행은 그 동안 시중은행
중 유일한 비금융지주체제로 비
은행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제약 등
시장경쟁에 불리해지주체제 전환



손태승 우리은행장

이 필요한 상황이었다.

우리은행은 내부검토 결과 지
주체제 전환시 출자한도 증가로
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
가능해진다. 이를 바탕으로 고객
맞춤형 원스톱(One-stop) 종합
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과 통합고
객관리,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
양한 복합비즈니스가 가능해지면
서 고객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
있다.

우리은행 관계자는 “지주체제
로 전환할 경우 증권, 자산운용,
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
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

고와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”

며 “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선
이사회 승인, 금융당국의 인가 및
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
으나 종합금융그룹 경쟁력을 조속
히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출범을
목표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속하게
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
의 우리은행 잔여지분(18.43%)을
털어내는 ‘완전 민영화’도 추진할
전망이다.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
이란 두 토끼를 잡아 정부 지분을
해소하겠다는 포석이다.

/안상미 기자 smahn1@

24일 금통위 ‘금리동결’ 전망 하반기 한차례 인상 가능성 ↑

부진한 고용 지표에
금리격차 고민 심화

최근 부진한 고용 지표와 미국
과 중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무역
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
커진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한
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
집중되고 있다.

시장에선 이달 금통위에서 금
리동결 분위기를 감지하며 하반기
인 7월 또는 10월 금리 인상 전망
을 내놓고 있다. 새롭게 부임한 임
지원금통위원의 발언에도 관심이
쏠린다.

2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예상
보다 저조한 국내 취업자 수 증가
폭과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실
업률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
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쇼크가 지속되고
있다.

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지난달
취업자 증가 폭은 석 달 연속 10만
명대에 머물렀다. 실업자는 100만
명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.

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“국내
경기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고
있다”고 밝힌 바 있다. 하지만 부
진한 고용 지표가 이어지면서 이
달 금통위에선 미국과의 금리 격
차에 따른 고민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
있다.

보인다.

지난 4·27 판문점 선언에 따른
북한과의 관계 회복으로 지정학적
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미국이 주
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
를 천명하는 등 강도 높은 보호무
역주의를 전개하면서 대내외 불확
실성도 커지고 있다.

물가상승률 역시 한은이 목표
로 하는 2.0%에는 확연히 못 미치
는 1.6%를 기록하는 등 주요 경제
지표마저 국내 상황을 여실히 드
러내고 있다.

시장에선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
정책 정상화를 이루면서 한은 역시
상반기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쳤
지만 이는 하반기인 7월 또는 10월
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.

해외투자은행(IB)인 골드만삭
스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
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췄고 연
내 인상 횟수도 기존 2회에서 1회
로 줄였다.

이 총재는 이달 초 필리핀 마닐
라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총
재 회의에서 “기준금리 인상의 고
려 요인으로 물가보다 소비, 투
자, 고용 등 실물지표를 더 신경
쓰고 있다”고 밝혔다. 이에 따라
전문가들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
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
있다. /이봉준 기자 bj35sea@